저는 소문난 책벌레로 어려서부터 수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 중 제게 가장 깊은 감동을 준 책은 중학교 때 읽은 백범 김구 선생의 자서전 <백범 일지>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역사상 유래 없는 수난을 당하던 20세기 초, 조선과 얼어 붙은 만주 땅을 오가며 민족의 부흥을 위해 온 생애를 바치신 삶의 기록은 제 인생에 하나의 지침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서문에 쓰여진 “우리 젊은 남자와 여자들 속에서 참으로 크고 훌륭한 애국자와 엄청나게 큰 일을 하는 큰 인물이 쏟아져 나오기를 바란다.”라는 구절에 따라, 언젠가 나라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자는 것이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 제가 세운 목표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전공인 영어를 완벽하게 숙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전공 공부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어디를 가서도 제 몫을 다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전공 과목 중 학점을 잘 주는 것 보다는 실력을 높이는 것을 선택해 들으려고 애썼습니다. <전공영문글쓰기>, <영문법>, <영어통사론>, <영어의미론>, <번역연습>을 수강하여 정규적인 영어 실력을 다졌고, 난해한 읽기 자료로 악명이 높은 과목인 <문화이론연구>, <비평이론>, <영미문학특수과제>도 피하지 않고 수강하여 복잡한 텍스트를 독해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성취를 이루고자 과목들을 수강하였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전공 과목 중 수강평가 웹사이트에서 학점 받기가 어렵다고 평가되는 것이 다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번도 탈선하지 않고 꾸준히 학과 공부에 노력을 쏟아 15개 과목에서 A+를 획득하고 6개 과목에서 A를 획득하여 2학년과 3학년에 걸쳐 성적 최우수 상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세운 두 번째 목표는 <백범 일지>를 읽으며 한 다짐과 같이 나라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소 황당하게 들릴 수 있는 목표이지만, 저는 어떻게 하면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까 골똘히 고민했습니다. 나라에 도움을 주려면 일단 나라를 알아야 하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이과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국의 철학과 역사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제 무지를 해소해 줄 과목들을 집중적으로 선택해 들었습니다. 1학년 1학기 때 <논어, 처음 만나는 한문고전>을 수강하였고 1학년 2학기 때는 <한국고전문학과 배경사상>, <동아시아20세기 국제관계사>, <삼국유사와 고려사의 세계>를 수강하였습니다. 위 네 과목을 비롯해 저는 학부 재학 동안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총 12개의 교양 과목 중 8개를 한국의 철학과 역사를 다루는 과목으로 채웠습니다.

1학년 2학기 때 <동아시아 20 세기 국제관계사>를 수강하면서 처음으로 법에 대해 관심이 생겼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이 식민지로 몰락하는 20세기 초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 조약을 체결하는 조선 관리들이 국제법에 무지했다는 사실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례로 조미통상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관리 신헌이 ‘최혜국 보장’이라는 조항이 발생시키는 법적 작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로 조항을 승낙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최혜국 보장’ 조항은 체결 당국이 상대국에게 항시적으로 가장 큰 특혜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후 열강들과 불평등 조약을 체결할 때마다 조선은 더하여 미국에게도 동일한 이익을 보장하여야 했습니다. 법에 대한 무지가 국익의 막대한 침해를 가져온 사례는 2학년 1학기 때 <19세기 조선의 개방과 21세기 국제화 환경>를 수강하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화도조약에서 별 이의 없이 승낙했던 조항인 ‘해안 측량권’은 훗날 일본군이 조선으로 용이하게 군선(軍船)을 끌고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작용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권고에 따라 조약을 원문으로 읽기 위하여 일본어 교양 수업을 듣고 한자도 외우며 치열하게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법에 대한 무지가 얼마나 큰 해악을 가져오는지를 뼛속까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 근대사를 공부하며 법의 중요성을 깨달은 저는 2학년 2학기 때 <영문학과 법>을 수강하였습니다. 이 수업의 목표는 마키아벨리, 토마스 홉스, 에드워드 쿡, 프로이트, 그리고 푸코의 저서를 영문으로 읽으며 법철학에 대한 기본 지식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수업을 들으며 저는 법이 국가에게 가장 큰 공리를 도출하는 구조라는 나름의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조선의 관리들이 국익을 해친 것은 법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에 정통하기만 하다면 정의를 보장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위와 같은 생각이 바뀐 것은 ‘이카루스’에서 읽은 소설 <<안티고네>> 때문이었습니다. ‘이카루스’는 학과 내 독서 토론 모임으로, 영문 책을 읽고 영어로 토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저는 회화 실력을 늘리기 위하여 2학년 2학기부터 ‘이카루스’에 참여하였습니다. <<안티고네>>의 주인공 안티고네는 오이디푸스의 딸로서, 오이디푸스의 죄를 알아낸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끝까지 남아 오이디푸스를 변호한 인물입니다. 안티고네는 오이디푸스를 죽이려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나의 아버지는 법에게 죄를 지었으나 인륜에게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안티고네의 변호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전까지 법만 엄격하게 적용하면 나라를 위해 공리가 도출되리라 믿었는데, 가장 큰 부정의가 법의 목소리로 실현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변호를 하는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는 자 옆에 서서 그를 보살펴 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지만 제 스스로도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 보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대학생활 내내 변변한 대외활동 하나 하지 못한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평소에 도서관에 상주하며 책을 읽는 것을 학부 생활의 재미로 알았기 때문에 2학년 때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도서관 봉사활동 외에는 봉사활동을 한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이해하고 먼저 다가가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우선 최대한 사람을 많이 만나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난생 처음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과 3박 4일을 같이 보내는 경험은 제 눈을 새로 뜨게 해 주었습니다. 또한 4학년 1학기 때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었습니다. 최대한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비록 화려하고 번쩍한 모임은 아니었지만 제가 스스로의 알을 깨고 나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소통할 수 있게 하여 주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